

월간 증 현

'79 12월호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들어 키폰전화기가 부쩍 인기를 끌었다. 한대의 전화기가 송수화와 인터폰의 기능과 교환대의 기능등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또한 가정주부들에게는 전자동 세탁기가 인기를 모았다.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세탁, 행굼, 탈수까지 자동으로 되어지니 얼마나 편리한가. 이제는 밭도 자동으로 지어진다. 회사에 출근할 때 쌀을 씻어 전기 밥솥에 얹혀 놓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다이얼만 돌려 놓으면 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밥이 지어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 수많은 물건들이 연구 고안되고 시판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물건들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으나, 사회가 점점 다원업무가 전문화되고, 복잡성을 띠게 됨에 따라 화 되어가고 사람들은 가능한한 쉽고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현대인은 같은 값이면 쉬운일,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쉽게 할 수 있을찌 몰라도 신앙인의 생활은 결코 쉽게 할 수 없다. 인생은 쉽게 살 수 있을찌 몰라도 신앙생활은 쉽게만 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마 7 : 13-14)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 1 : 29)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은 결코 성도의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천하고, 모든 것이 과학화되어 가도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만은 계속 “좁은 길”이요, 그 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자들은 신앙생활도 현대식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신자들의 생활기준과 방법은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냐? 해서는 안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느냐?”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도의 생활의 기준을 보여주셨다. 다니엘과 그의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나라에서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할 때 신앙적인 지조로 과감히 거절함으로 고난을 자처했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잠시는 쉬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쉬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나?”가 그의 생활을 결정하는 척도였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관원들과 강도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다. 관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행 4 : 18)고 위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 : 19)고 대답했다. 그들이 관원의 말대로 했다면 고난과 핍박이 없이 안일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자신들이 “쉽게 사는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좁고 고난이 기다리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제 1979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일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자. 쉽고 편이한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해야 될 일에는 충성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은 과감히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었는지?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신 사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겸손히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살피면서 이 한 해를 결산하고 80년 새해를 받자.

〈주 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72호 월간 **충현**

— 12월호 차례 —

권 두 언 한 해를 보내면서.....	주 간 · 2
이달의말씀 예수님을 바로 경배합시다.....	김장인 · 4
성탄동화 그 때 그 사람	강정규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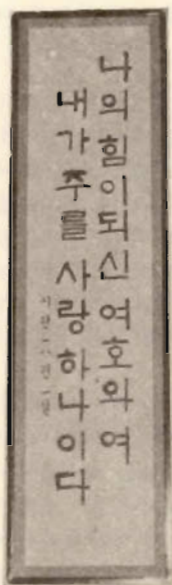
— 회 특집 / 1979년을 마치면서 —

교육위원회 충현주교 운영에 대한 결산.....	정은표 · 9
해외선교 계속 확장되는 선교지역.....	편집실 · 12
구역권찰회 계속되는 철야기도회.....	편집실 · 16

편집실칼럼 12월이 주는 의미.....	이형수 · 18
찬송가감상 교요한밤 거룩한 밤.....	김하진 · 18
도서정보 도서실 소식	도서실 · 19
책 소개 크리스찬의 자아형상	장선애 · 19
기독교윤리 생활속의 윤리(결혼)	김하진 · 20
독자의 글 천사로 연주케 하소서.....	이혜복 · 24
구역소식 11월중 새 교우·결혼자 명단	편집실 · 22
권찰수첩 효과적인 구역심방	김재장 · 23
성경통신 11월 모범해답	성경학원 · 22
교회소식 성가대원·구역권찰·주교교사명단 및 1979년 일지	편집실 · 25
12월 행사.....	편집실 · 34
편집후기.....	편집실 · 34
답한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성봉 · 35
실로암 못가에서	36

표지설명 / 1979년에 우리 교회안에 있었던 일들과 주요사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1979년도 발간된 월간충현의 1월호부터의 표지를 실어본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경배합시다

성경 / 마태 2 : 1 - 12



김 창 인 목사

(본교회당회장)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분들과 같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명절인 「구주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옳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대개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귀한 명절, 가장 영원한 명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명절은 땅위에 인간들에게만 명절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는 명절입니다.

이 날은 너무나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표인 목자들이 새벽찬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너무나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명절은 거룩한 명절, 이 명절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명절, 이 명절은 인간들에게 평화와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명절입니다.

1.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성탄절을 지키지 맙시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장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헤롯왕과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길 때에 따라가지 않고 앉아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더러는 바로 살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바로 살지 않는 못

된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스승이 되고 행동으로는 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모리배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훌륭한데 내용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겹대기만 꾸미고 기쁘다고 떠들고 하는 성탄카드나 나눠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만들어 새우고 날뛰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만 하도록 가르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서기관처럼 이 날을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2) 예루살렘 시민처럼 떠들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맙시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를 밤낮으로 고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고생한다, 때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로마의 죄사슬을 벗어나고 또 우리는 자주독립국가가 된다. 우리 선민의 나라가 땅위에서도 최고 행복스런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하며 밤낮으로 기다리기는 하였습니다. 기다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 별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가를 묻는 소식이 전파되어 이 소문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지만 소동대기만 했지 실제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거리가 소란해 집니다. 떠드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모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겉사람은 떠드는데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3) 베들레헬 촌민처럼 물인정하여 성탄절을 지키지 맙시다.

베들레헬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헬에 나시겠다고 여러곳에 예언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헬의 자손들이 예수님 나신것을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갓난아기 예수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은 겨울날 찬 바람이 부는 때에 구유에 누워 계시니 너무나 냉정하고 물인정한 베들레헬 시민들은 개인주의에 눈이 어두워진 무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들레헬 사람들처럼 지내 버리면 안되겠습니다.

2. 우리는 이 거룩한 명절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지킵시다.

이 박사들은 어떻게 이 영광스런 명절을 지켰습니까?

1) 성경에 입각해서 지켰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평소에 양심에 때문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나신 것을 성경과 대조해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별을 보기도 찾아가지 못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난 후, 떠들지 말고 미리미리 평소에 성경읽는 것이 생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지켰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깨달은 때에 가만 앉아 선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깨달은 뒤에는 곧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베들레헬으로 까지 찾아옵니다.

오늘날 땅위에는 악인줄 알고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고 선인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인줄 아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선인줄 아는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로 아는 것도 귀합니다 하는 바로 안 것을 곧 실천하는 것은 더욱 더욱 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앞에 실천에 옮기는 맘 홀리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 분별있는 경배를 하면서 지켰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박사들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잘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앞에 무릎을 꿇고 보통 절이 아닌 경배를 했습니다. 백성이 임금님에게 절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절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을 할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이 겸손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성이 아름답습니다.

4) 모범적으로 헌금을 바치면서 지켰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한 다음에는 보배함을 열어 황금·유향·몰약의 예물을 풍성히 바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일에 대하여 네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헌금은 바쳤는데 정성은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명예를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잘못된 헌금입니다. 돈을 바치고 마음이 없으면 명예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 말로는 다 바친다고 하며 실제로 요긴한 것은 다 감춰 놓고 부스러기만 조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외식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는 썩 시치미를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욕심장이이며 모리배입니다.

박사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몸으로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물질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경배입니다.

5) 천사의 지시대로 탄 길로 귀국하였습니다

‘해롯왕에게 가지 말고 탄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박사들은 그날 새벽에 탄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를 무세워 뺀 탄 길자가 아니라 세상의 땅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내 목숨이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에 상처 앓을까 보아 회생을 각오하고 탄길로 가는 박사들의 신앙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날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시민처럼 떠들거만 하면서 이 날을 보내지 맙시다. 또 해롯왕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들은 저 박사들처럼 평소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범한 바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초림을 거다린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뜻있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 그 사람

강 정 규

(소설가)

경미는 금년 7 살입니다. 그러나 생일이 12월이어서 6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경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유치원은 방학이기 때문입니다.

경미는 심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경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엔 아빠도 엄마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빠는 장로님의 병환이 위독하셔서 어젯밤부터 병원에 가 계시고, 엄마는 성가대 언니의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경미야, 케익 좀 먹으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싫어. 싫어.』

경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경미가 촛불을 붙여 끄고 플라스틱제품의 톱니 있는 칼로 자른 생일 케이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미는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아빠는 매일 바쁘십니다. 교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셔야 합니다. 생일잔치에도 가시고, 결혼식에도 가시고, 장례식에도 가셔야 합니다. 환갑잔치에도 가시고, 돌잔치에도 가시고, 회의에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기도원에도 가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가셔야 합니다.

남의 집 생일잔치에 가서는 축복기도를 해 주시면서 고명딸인 경미 생일날은 병원에 가셔서 밤을 새우신 것입니다.

경미는 화가 나서 ‘앙’ 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때, ‘뽕뽕’ 하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구나, 경미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문지르면

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미 대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빠』

경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시는 아빠에게 가 매달렸습니다.

『장로님은 좀 어떠세요?』

아주머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네, 수술경과가 좋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내 생일인 줄 몰랐어?』

경미가 아빠에게 다그칩니다.

『오, 우리 경미 생일을 왜 몰라? 아빠하구 시내에 가자, 맛있는 거 사줄테니까……』

아빠가 경미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결혼식에 가셨어요…… 목사님, 식사하셔가지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봐 두세요, 경미하구 시내에 나갈 참입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경미는 뿔 듯이 기뻐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빠하고 시내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빠는 양치질을 하시고, 경미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자리에 탔습니다. 아빠는 운전대에 타셨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수술하셨다는 장로님이 아빠에게 사주신 새 자동차입니다. 경미는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오늘 처음 타보는 것입니다. 경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속은 따뜻했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점의 진열장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마치 시골학교의 운동회날 만국기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



란 백화점 건물 벽에는 엄청나게 큰 산타크로스 할 아버지가 사슴이 끄는 썰매에 가득 선물을 싣고 달리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경미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응?』

아빠가 잠깐 경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나 무슨 선물 사줄거야?』

『글쎄…… 갖고 싶은 것 말해 보렴……』

『……』

경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형을 사달랴까, 가족 털신을 사달랴까…… 경미의 머릿 속에는 갖가지 갖고 싶은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경미는 무심코 자동차 의자 주머니에 꽂힌 주보를 빼 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빠의 이름과 교회이름, 그리고 지난 주의 예배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미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인형을 사는 것이 좋을까, 커다란 강아지를 사는 것이 좋을까…… 그때 자동차의 꽂무니를 뒷차가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경미는 하마터면 뒷통수를 찔고, 이어서 코피가 터질 뻔했습니다. 아빠가 뛰어 내렸습니다. 뒷차에서도 운전수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아빠가 샅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운전수 아저씨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미는 유리창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운전수 아저씨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쇼, 사람 죽이고도 용서해 달라면 되겠오?』

아빠가 ‘퍽’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만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여가 2만원 드릴터이니 좋게 해결해 주세요, 네? 선생님, 제발 용서를 빕니다……』

운전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새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구 단돈 2만원이라니…… 당신 참 엄치도 없구려…… 안돼요, 교통 순경을 부릅시다……』

아빠는 운전수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며 큰길로 나가 교통 순경을 부르려나 봅니다.

『새벽부터 번 돈이 모두 이것뿐입니다, 제발 선생님 살려 주십시오……』

운전수 아저씨가 아빠의 허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안돼요……』

아빠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경미는 생각합니다. 아빠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재설 때는 지렁지 않았습니까. 밭에 나가 겉도 매고 밤 늦도록 책도 읽으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며, 새벽이면 뒷산 언덕을 산책하셨습니다. 때마다 경미는 아빠의 등에 업혀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는 지금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교회도 크고, 교인수도 많다 보니 매일같이 바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옛날같이 인자한 아빠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이 쪼인 아빠는 눈을 무섭게 뜨고 운전수 아저씨를 마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경미는 운전수 아저씨가 불쌍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차를 들이받았을까, 눈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경미는 큰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
 아빠가 돌아옵니다.
 「아빠가 늘 말했잖아? 용서하라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용서하라구.....」
 경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
 아빠가 경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십니다. 운전수 아저씨도 경미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기사양반, 그냥 돌아가시오, 그리고 그돈 가지고 가셔서 오후엔 꼭 쉬십시오.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구.....」
 아빠가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그렇지만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물어야지요.....」
 운전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아빠가 운전대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수 아저씨가 경미가 앉아 있는 자동차 뒷자석 쪽으로 걸어 옵니다.

「아가야, 고맙다.....」
 운전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그리고 이거.....」
 경미는 들고 있던 주보를 한장 유리창 틈으로 내밀었습니다.
 「아가야, 안녕!」
 운전수 아저씨가 주보를 받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아빠는 설교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쭈그러진 차를 고치는데 8천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텅 빈 예배당에 그 때 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 기억하세요?」
 「.....」
 아빠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아저씨야.....」
 경미가 소리쳤습니다. (*)

정음서림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을지로 2가에 있던 정음서림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김창인목사의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라운판·80파운드미색모조·400페이지
 양장 - 3,500원 · 반양장 - 3,000원

정음서림은

성경·찬송가·각종 기독교서적 및 교회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 옮긴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48
 〈새문안교회 정문 옆〉

전화 / 73-1219 · 대체구좌 / 503268

대표 김 기 정 장로

* 월간 총현에 광고를 게재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월간 총현 편집실(260-3407·34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주교운영에 대한 결산

새해를 맞아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모든 계획들을 정리하고 결산하여야 할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루 해를 보내고 한날의 모든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고 하는 일은 한날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계속하여 일고있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략하게나마 1979년 충현교회 주일학교 운영계획에 관한 실시결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충현교회 주일학교 전체에 대한 1979년 결산서로서 대치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혹 그러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단지 올해 교육위원회가 좀 깊게 관여하였다고 생각되는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언급함으로써 평가와 분석적인 것이기 보다 는 이후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 교육의 목표와 방향

1979년 교육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는 「천국일꾼양성」이라는 교회의 목표에 따라

1. 영력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되게한다.
2. 교과체계의 확립과 모든 행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3.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하여 왔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사·교과운영』에 있어 어떻게 하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주로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듯한 인상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보다 확고하고 구체적인 충현주교 교육이념의 정립문제가 크게 대두되게 되어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지하게 논의도 하게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의 이러한 자각과 움직임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진전이 크게 기대된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행적적인 조직제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단순하고 획일적인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며 아울러 보다 분명하고 올바른 교리적인 체계위에 교육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세계와 한국에 있어서 충현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 교과과정

충현주교의 교과과정이 최초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은 1967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국 주일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년부·초등부 공과가 조천일 목사, 임승원 강도사, 이순환 목사등으로 하여금 집필하게 하여 1968년부터 정식으로 사용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1975년 어린이새신자부·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의 교과과정이 설정 또는 수정되면서 정리되었고 1979년 청년부·선교부·새가정부의 교과과정이 새로이 설정되어 현재로는 노년부와 산업전도교육부의 교과과정이 미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1979년 주일학교 운영안 교과과정규약 및 운영해설 참조)

이같이 마련되어 온 교과과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 수정·보완하여 나간다는 것이 올해 교육위원회의 교과과정에 대한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으로는 올해부터 주교 각부의 지도교역자로하여금 주일낮 공과시간 이외에 사용되는 모든 교수내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하고 또 각부마다 매학기별로 자체교육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가급적 지도자의 빈번한 이동을 억제하고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나 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부의 교과과정이 적극 반영토록하였다.

즉 이미 마련된 교과과정을 학습진행과 생활지도에서 충분히 반영토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초계획이 일부 실시는 되었지만 만족스러운것은 되지 못하였다.

교과과정문제에 관한 한 아직도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해결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주교 15부의 모든 교과과정이 이제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연관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② 주교 15부의 모든 교과과정의 편중성을 시정하고 교리적인면에서도 미급한 점이 있다면 보완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크게 실효성이 없는 현행 교육평가방법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평가방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교과내용에 알맞는 교재들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⑤ 모든 교사들에게 교과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나아가 주교 모든 행사에 그 내용이 교육의 연장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교 사

교사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올해 두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즉 개인신앙의 계속적인 성장과 교사로서의 능력을 증진시켜 전체 교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최근들어 중현주교 교사의 자질문제에 있어 여러가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 신앙연륜이 짧고 교사 경력이 거의 없는 미숙한 교사들로 교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학습지도에서나 주교행정업무처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전체교사수준의 질적인 저하에 대해 크



〈1979년에 두번째 실시한 교사를 위한 단기 수련회〉

게 우려하고 특별한 배려와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교육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는데 1980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이제까지 교사의 자질향상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교사의 자격기준, 교사의 교육과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힌것으로 올해 얻은 큰 수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자질향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체교사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조속히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② 중현주교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교사도 피교육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교사교육계획을 가능한 한 속히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애매모호한 현재의 교사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이제까지 교사자질향상을 위해 각부가 산발적으로 실시하여 온 교사훈련(특강·기도회·강습회등)을 체계화하고 그 내용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학 생

먼저 학생 개개인의 신앙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나아가 전체학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학생지

도와 교육 방법개선에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 올해 학생문제에 대한 목표였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학생문제라고 하면 학생의 출석수 증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양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는 용이치 않아 전문적인 지식과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학생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의 손이 내면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내적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으며 기대하는 바가 실제와는 서로 달라 동상이몽(同狀異夢)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학생문제의 외형적인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인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생신앙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학생출결문제를 원인별로 분류파악하여 주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② 교사는 학생들의 전체성향을 파악하여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개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환경을 세밀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교사는 교회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해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지적인 수준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대평가방법을 바꾸어 절대평가, 진단평가등을 하도록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내적인 변화정도(신앙성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교행정·재정

주교행정에 있어서는 업무를 단순화·체계화 시키며 재정에 있어서는 각부가 가급적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올해의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에 있어 올해 크게 진전된 점은 각부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주교행정업무처리나 재정관리에 있어 주교 각부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에 있어서도 각부 나름대로 정도가 모두 달랐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는 교육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행정업무가 어느정도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어느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변화는 앞으로 수년내에 크게 발전하여 주교행정이 본체도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까지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재정관리의 질서를 잡기 위해 다소 획일화 되고 경직된 상태를 각부의 특수성에 맞도록 다양화 하며 전문화시켜 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업무규정과 재정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실무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업무처리절차를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특히 행정업무는 간소화하되 가급적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하고 주교 각부는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주교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실무자는 물론 주교 전체 교사가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행정업무와 재정관리업무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처리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⑤ 주교 각부의 모든 기록이 실제문제 개선에 근거가 되며 나아가 주교 전체의 실태를 평가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든 문서들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 맺음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에는 총현교회의 한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도 주교 각부는 주교운영에 있어 생각들이 서로 크게 달랐었지만 올해 교육위원회의 노력이 이러한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교 전체를 보게 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교 각부의 이같은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주교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지향점에 있어서도 상호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영아부에서 시작된 총현주교 교육이 대학부와 청년부에 이르러 완전하고 충실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계속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위원회 / 정은표집사)

계속 확장되는 선교지역

충현교회 해외선교 10년을 넘긴 첫번째 해인 1979년 여러면에서 괄목할 만한 해였다. 지난해의 선교대회에서 해외선교 10년을 결산하며 소망했던 점들이 하나 하나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 해였다.

확장되는 선교지, 보다 유능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선교사 양성 코스가 될 주일학교 선교부의 신설, 중국 대륙선교를 위한 중국어 강좌의 개설 및 중국대륙 선교의 밤의 개최, 또한 현지에서 열매 맺는 선교 사역등의 밝고 기쁜 소식 가운데서 지난 7월 애굽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이연호선교사의 사망 소식은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다.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속에서 1979년도 해외선교 부문은 펍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제 지내온 1년을 선교본부와 선교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달의 선교월보는 본 기사로 대체한다. 이 글을 쓰는데 해외복음선교회 지도 김영휘전도사님이 도움말을 주셨다.

선교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1. 제 5 회 선교주일 - 1월28일

제 5 회 선교주일행사가 1월28일 있었다. 전 교인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고 선교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더하기 위하여 대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집회에서 선교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 및 강의,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해외선교사들의 활동모습을 교회 게시판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많은 교인들이 해외선교회에 입회하여 1월28일자로 해외선교회 회원이 1,200명(성인만)을 넘었다.

2. 주일학교 선교부 개교

선교사 후보 양성과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주일학교 선교부가 1월29일(월) 개교됐다. 중·고등반, 대학·청년반, 장년반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받게 되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지도에 김영휘전도사, 부장에 위영환장로, 부감에남

선우집사·안윤진권사로 시작한 선교부는 9월에 조준상전도사를 부지도로 보강하고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3. 이연호선교사의 현지 순직

이집트 주재 이연호선교사가 제 1 회 해외한인교회 선교대회 참석차 4월22일 귀국하여 선교 보고와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전략등 6월20일 귀국할 때까지 전국을 다니며 50여회의 집회를 인도하시며 열심을 다 하셨다.

그러나 귀국한 지 며칠 지난 7월11일 교통사고로 현지에서 순직했다는 통보로 온 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교회는 현지에 사람을 파견해 유족들의 요청대로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교회는 7월25일, 수요일 저녁 본 교회당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충현교회 해외선교 10년역사 가운데 첫번째 희생자가 된 것이었다.

4. 선교지확장 - 선교사 4 명 파송

고 이연호목사의 현지 순교로 공백이 된 자리에 고 이연호목사의 사모되시는 김신숙 전도사가 자원하여 고이연호목사의 추도 예배가 드리지는 7월25일 김신숙전도사의 파송예배를 함께 드렸다.

이에 앞서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수고하신 백성통목사의 가정이 7월20일 출국, 신동수집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던 재아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한편 애굽선교를 위해 본 교회의 이준교목사가 계속 가게 되어 10월31일 애굽선교사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로써 애굽에는 2명의 선교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준교목사의 애굽선교사 파송예배시 인도인 엘리야겔간전도사의 선교사 파송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다. 엘리야 겔간 전도사는 인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그동안 아시아연합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분과 연결을 맺어 인도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본인으로서 보나 우리교회로 보나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지는 7개국(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서독,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에 9명이 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본 교회의 김재창목사가 파라과이 선교사로 결정되어 선교사업이 보다 확장되어지게 된다. 김재창목사는 수속이 끝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5.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노력

작년말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중국 대륙의 변화는 교회와 선교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6월부터는 중공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귀국한 이 응씨를 강사로 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또한 금년들어 우리의 주변의 인물이 중공을 직접 방문하게 되고 직접 중공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더욱 중국대륙 선교에 관한 관심이 높아 졌다. 때 맞추어 홍콩의 홍콩만선교사가 지난 10월28일 귀국하여 변화되는 중국대륙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다. 홍콩만선교사의 귀국 보고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중국대륙 선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따라서 해외복음 선교회에서는 중국대륙 선교를 위해 내년도 부터 중국대륙에 관한 정보를 담은 회보를 발행키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행중에 있다.

이제 해외복음선교회와 온 교회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느라 분주하다. 충격과 기쁨, 감사와 어려움이 겹쳐지는 가운데 1979년이 가고 있다. 이제 1980년도에는 금년에 못다한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해외 선교지

1년간 각 선교지에서 행해 온 여러가지 일들을 종합정리하여 중요한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서 만수선교사

1. 개척지 소식-총 19명현지인 파송중.
 - (1) 반테안지역(수코요전도사) 14명 결신
 - (2) 골로지역(얄민전도사) 3명 결신
 - (3) 워노기리지역(마르판도전도사) 5명 결신
 - (4) 수코레조지역(얄민전도사) 19명 결신
 - (5) 뽀뿌르사리지역(파르대안목사)
 - (6) 뽀뽀마스지역(요육전도사)
 - (7) 뽀차왕이지역(수와디전도사) 4명 결신
 - (8) 워노사리지역(다니엘전도사) 4명 결신
 - (9) 무떠한지역(엘리오전도사) 7명 결신
 - (10) 바나란지역(따리바바전도사) 4 가정과 3명 결신
 - (11) 두구달린지역(무칸도전도사) 11명 결신
 - (12) 꼬로지역(수원도전도사) 12명 결신
 - (13) 뽀충지역(요나단전도사) 5명 결신
 - (14) 시리아리아지역(뽀뽀불론목사) 3명 결신
 - (15) 수디모로지역(수코요전도사) 13명 결신
 - (16) 시도와야지역(바르나바스전도사) 11명 결신
 - (17) 메갈웨로지역(자아구스민전도사) 10명 결신
 - (18) 숨비레조지역(뽀리바디전도사) 3명 결신
 - (19) 웅구당지역(수하르도노전도사)

2. 정글순회용 찬송 카세트 제3집 완료
3. 순회전도-동부자바 및 발리지역(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4. 개척지 교회건축-4 군데
5. 개척지 세례식-모두 48명 수세
금년도 인도네시아개척교회 보조자명단

- ① 남일교회 ② 성덕교회 최성옥권사 ③ 수영로교회 ④ 옥인교회 청년회 ⑤ 본교회 김보일집사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지원 요망함.

홍콩-홍종만선교사

홍콩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다.

1. 현지 한인교포에 대한 전도 확대
교우들의 직접전도, 문서전도와 한인학교, 바자회, 야외예배, 각종강습회등을 통한 간접전도와 도서실운영, 상담실운영등을 통한 전도등이다.



〈충현교회 해외선교 역사 10년에 첫번째 희생자가 된 고 이연호목사 장례식〉

2. 동남아 선교

홍콩의 각 선교기관과 국내의 여러 선교지도자들을 접촉하므로 선교정보를 수집하며, 동남아선교현지를 직접방문하여 선교현황을 파악하고, 홍콩한인교회를 통한 선교헌금을 현지에 송금하고 있음.

3. 중국대륙 선교

중국대륙 선교정보를 수집하고, 선교기관과 유대를 맺어 협력선교를 전개함.

- ① 한국중국교회연구홍콩센터의 조직
- ② 중국선교에 대한 간행물 발간계획
- ③ 마카오중국인 개척교회 시작
- ④ 선교헌금을 보냄 - 성경, 방송전도, 라디오 및 카세트보급을 위하여
- ⑤ 대륙선교의 전문가 양성계획

4. 선교사훈련기관 설치운영

중국교회에 헌신할 후보자들을 일시방문케하여 선교기관들을 통해 훈련할 계획.

중국선교헌금을 위해 본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어 헌금해주신 분을 소개한다. ① 유순녀권사 ② 무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 굽 - 김 신숙선교사

현재 애굽 복음주의 신학대학의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1980년도 선교활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1. 원주민을 위한 선교활동계획

- ① 신학대학에서 근무하면서 문서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② 80년도에는 애굽의 벽촌과 사막에 한국선교부 소속 지교회를 3개지역에 세울 계획임.

- ③ 신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2. 아프리카선교를 위하여
 - ① 자료수집중에 있음.
 - ② 한국 선교사를 초청할 수있는 외국 선교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물색중.
 - ③ 1년에 2회 아프리카 순회예정
3. 북한 선교를 위하여

공산권선교단체 및 선교사와 협력함.
4. 카이로한인연합교회 유년주일학교 지도
5. 아랍어 언어훈련

이를 위하여 현지인 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는 애굽 원주민선교와 아프리카선교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서 독 - 육 호기선교사

그동안 3군데 한인교회(뮌헨부록교회 비스바덴교회, 하나우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운영해 오므로써 앞으로 현지교회를 위한 발판을 굳혀 나가고 있다.

현지선교를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1. 미군인가족에 대한 선교계획

미군인들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후 미군인 남편들과 자녀들을 인도케한다. 독일 각처에 한국 미군인 가족이 없는 곳이 없지만 거의가 다 버려진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음사역은 현지선교사를 위한 접근 방법이 되었다.

2. 자체교회건물의 확보와 자립의 문제

성경을 저적으로만 알고 생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있는 독일교회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 우리자신의 생동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 주기 위하여 자체교회건물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 더욱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정도로 한인교회를 키워나가 현지 선교의 기틀을 삼을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 백 성룡선교사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한다. 백목사님은 금년내로 재야중앙교회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선교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남미현지인을 추진하여 한국본부에서 훈련하여 파송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대륙 선교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종만 선교사가 귀국하여 중국대륙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호 주-김 태현선교사

1. 한인교회의 대 호주및 태평양선교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
2. 현지선교단체와 유대강화-아시아, 태평양선교회.
3. 외향 선박에 대한 선교계획
4. 현지순회전도계획-파푸아, 뉴기니아

애 굽-이 준 교선교사

11월 3일 임지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 김선교사 댁에서 한인교회교우들과 함께 도착예배를 드리고 전예 고 이연호선교사가 있었던 집에 사택을 정하고 난후 주애굽 한국대사를 방문 인사하고, 1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였다.

또한 신학교에서 총회장과 학장을 만나 애굽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김신숙선교사와 함께 현지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애굽현지교회 건립을 위해 ① 도원회 ② 서원교회(김수학목사) ③ 서울남교회 ④ 박윤선목사 ⑤ 본교회 박영엽 집사께서 후원해 주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요망합니다.

일 본-유 병세평신도선교사

1. 일본에서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여 그동안 시편공부를 마치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공부함으로 영적으로 큰 부흥을 하고 있다.

2. 환자치료에 바쁜일과중에서도 병원전도 및 대합실전도, 노방전도등을 실시
3. 일본에 와있는 외국선교단체등과 계속 유대강화를 맺고 있다.
4. 사도님 이편사계서는 부인성경반과 주일학교인도와 숨은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는데 진력함으로 선교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 독-박 용삼평신도선교사

박선교사는 지금 튜빙겐대학에서 일반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의 말과 글을 통해서 증거하셨으므로 언어학은 신학연구에 있어서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논문의 전체가 제7장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말까지 제4장까지 완수할 계획이며, 부전공으로 피터·바이엘하우스박사 밑에서 선교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81년도에는 박사과정이 모두 마쳐질 계획이다. 모든과정이 끝나는데로 자유주의 신학이 패배한 독일사회에 대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전파하고, 귀국하여 한국교회의 내일의 지도자양성을 위하여 특히 선교분야에서 크게 공헌하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 도-엘리아 켈간선교사

그동안 석사논문심사과정이 지연되어 출국이 금년도 12월 말일경으로 변경되었다. 인도에 도착되는대로 현지선교와 더불어 지도자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공산권 선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매일 계속되는 철야기도회

지난 1년간은 구역권찰회에도 큰 변동이 있었다. 가을 심방의 중지, 행정의 간소화 등과 함께 8월 1일부터 실시된 구역단위 철야기도회등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일들을 정착화시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예기했던 성과를 올리는 일만 남았다. 1979년도 1년간의 구역권찰회의 일들을 구역권찰회 회장이신 김재창 목사의 도움말을 얻어 정리해 본다. ————— 〈편집실〉

교회의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는 일에 열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1000 여명이 넘는 제직회의 회집이 어렵고 각 지회의 회의가 그렇고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세례교인의 참여도 다 마찬가지이다. 구역권찰회도 예외가 아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모이는 구역권찰회 월례회는 회원 총수의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상황에서 늘 모이곤 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득이한 분도 없지 않으나 항상 습관적으로 불참해도 좋은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듯하다.

구역권찰회 월례회에는 구역 담당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들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 교회 사정을 모르고 교인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역권찰회의 1년의 결산을 하기 앞서 구역권찰회·월례회의 출석문제가 먼저 문제로 제기되어야 겠고 생각해 보아야 겠기에 잠시 다루어 보았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진행이 있었다 해도 구역요원의 대부분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행해 졌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겠기에 말이다.

1. 구역권찰 요원 훈련

간단한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구역권찰 요원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구역장의 업무중 매달 작성 제출해야 하는 구역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구역보고서로 어느 구역장은 일년 내내 한번도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회 구역권찰회의 움직임과 교회의 움직임등에 무관심하여 각 구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신들이 모를 뿐 더

러 각 구역식구에게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역권찰 요원의 훈련 및 교육의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구역월례 회시나, 월간총현등을 통하여 중요사항등이 광고됐으나 보다 집중적인 훈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차적으로 각 구역요원이 자신이 맡은 바 임무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알아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에 구역요원 훈련은 연초에 집중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해야 될 것이다.

2. 행정간소화 및 구역장의 행정처리

1979년에 들어서면서 구역장의 행정업무가 대폭으로 줄어들었다. 9가지의 서류를 갖추고 정리, 보고하던 구역장의 행정서류가 2가지로 줄었다. 거의 없다시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고서류가 축소됐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시행하지 않으면 불편할 뿐이다. 이번의 행정간소화를 제도화했지만 일선 구역장이나 구역 담당권사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했을 경우에 구역카드조차 정리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한달에 한번 제출하는 구역보고서도 보고되지 않으므로 연말 권찰들의 개근, 정근상의 기준을 구역보고서에 의해 파악 정리하게 됨으로 누락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구역행정간소화는 매우 좋은 제도였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3. 전 구역의 구역예배

그동안 희망구역에서만 구역예배를 드리던 것을 지난 해부터 전 구역에 확대하여 구역예배를 권장하게 되었고 구역예배도 예배와 성경공부, 친교등으로 구분하여 성경공부를 각 구역장이나 구역교사가 담당케 하였다. 지난 해에는 구역예배를 안 드리는 구역도 있었으나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를 강조, 거의 전구역이 구역예배를 드리게 된 점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구역예배시 성경공부로 사용한 교안은 매월 월간 총현에 게재되었고 이 내용은 이성봉목사가 집필하였다. 이 구역예배를 통하여 구역원 서로를 알 수 있고 또 구역단위 성경공부가 활발히 전개되어 이를 잘 운영하는 구역은 매우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반면 아직도 2-3개 구역이 연합하여 구역예배를 드리는 구역들은 내년에는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구역단위 철야기도회

매일 저녁10시, 3-4개 구역을 묶어 철야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8월 1일부터였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이 철야기도회는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은 많은 주위 환경으로 영적으로 잠자기 쉬운 태인 것이다. 이에 매일 교회에 모여 영적불침번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박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의 전 교역자가 이 철야기도회의 인도자가 되어 순번적으로 하루 저녁씩 맡고 구역담당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을 중심으로 해당구역 철야기도일에 구역원 모두가 교회에 모여 철야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욱 열기있게 기도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구역은 거의 2개월에 한번 정도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무관심한 어느 구역은 몇사람도 모이지 않는 실정이라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5. 가을 대심방중지

매년 1년에 봄, 가을 2차례 실시하던 대심방이 금년에는 봄에만 실시하고 가을에는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교역자들의 유고와 목주하는 업무로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다. 가을대심방이 중지됨에 따라 믿음이 약한 교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이에 대처, 심방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간 중에 상담을 받고 있어 대심방을 못하는 대신 이와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년은 별 변동이 없는 구역권찰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나 구역예배가 정착화 됐고 매일 구역단위 철야기도회가 실시되고 있는 점등을 1979년의 구역권찰회의 획기적인 일인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에의 이같은 일들이 보다 내용적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바로 잡습니다

지난달(11월호) 월간총현 20페이지에 제작상 착오로 탈자(脫字)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좌측 위에서 16행, 34행과

우측 위에서 11행, 14행 왕○→왕국

좌측 위에서 24행 대○→대해

우측 위에서 6행 Covenan t→Covenant

우측 위에서 23행 ○점→촉점

우측 위에서 34행 질서○→질서의, 특○→특권

우측 위에서 36행 ○○의지가→그의 의지가

특별제직회안내

아래와 같이 특별제직회를 모이니 제직 여러분은 꼭 참석하시기바랍니다.

1. 일시/1979년12월28일 오후7시

2. 장소/ 본 당

3. 안건/1979년도 결산

1980년도 예산

제직회장

12월이 주는 의미

이 형 수

상점마다 물건이 쌓이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거리를 물결치고 모두에게 착해진 마음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끝에 와 있게 된다. 또한 한 해동안 못다 이룬 일들을 가슴 아파하고 닥아오는 새해에 희망을 걸고 하지만 끝내 지나온 한 해가 후회스러운 것은 마지막이 주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한잔의 술로, 판데해진 마음으로 지난 것을 잊고 새것을 맞으려하지만 새 날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 옛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 버리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복잡한 사회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열심히 뛰다 보면 무엇이 인간의 근본인지, 누가 사는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와중속에서 일년의 마지막 달에 와 서서 1년을 돌이켜 보고 자신을 바라 볼 때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앞에 진실할 수가 있을까? 지나간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좀 철저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싶다. 새날을 맞이 이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철저하게 진실하여 자신을 바라 보고 새 날을 바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철저한 것 외에 하나님앞에 철저하게 진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기의 양심, 자기 자신에조차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앞에 진실할 수 있을까?

며칠 앞날은 이 마지막 달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 보고 하나님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산과 이 강산이 흰눈으로 덮일 때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과 딸들에게 불러 줄 승리의 찬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 Holy Night !)

(새 12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하면서도 거룩한 밤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깊은 밤중에 아기의 울음 소리가 들렸고, 그 아기가 누운 바로 옆에서는 해산의 고통도 다 잊어 버린채 아기 엄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주여!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생각한다. 엄마의 기도하는 자리 옆에서는 방긋웃는 모습으로 아기예수가 새근 새근 새로 잠들고 있었다.

이 찬송은 요셉 모르(Zoseph Mohr, 1792 - 1849) 신부가 1818년 작시한 곡으로 그 당시 교회 울가니스트인 구루버(Franz Grüber) 선생이 곡을 붙였다. 그후 이 찬송은 전 세계 인류에게 크리스마스 캐롤로 불려지게 된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곡이 된 것이다. 모르신부는 오스트리아 잘스브르크도시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오벤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에 부임한 젊은 신부였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이틀앞둔 밤에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때 머리에 섬광과 같이 떠오르는 시상이 있었다. 급히 산을 내려와 시상을 정리하게 되었고 다음날 24일 새벽에 당시 그 마을학교 교장이며 교회의 반주자였던 구루버를 찾아가 곡을 부쳐 줄것을 간청하였고, 이렇게 완성된 찬송이 그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 크리스마스이브에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둘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비록 시골교회의 어린아들이 부르는 성가였으나 베들레헴 성막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들던 천군천사의 노래와도 같이 아름다운 찬송이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랴! 왕이 태어나심을 선포하는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송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계 인류의 귓전을 두드려 주기를 필자는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도서실 소식 —

1. 특 강

지난 9일 본 도서실에서는 박형용목사님(현 총신대교수, 도서관장)을 모시고 “성경의 언어적인 성격과 읽는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다. 약 8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된 언어의 신적기원과 시대적인 변화성(부패성), 그리고 성경의 읽는 방법도 다독과 정독을 겸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2. 도서정리

해마다 12월 한달은 본 도서실에서는 도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도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12월은 대출도서를 일제 반납시키며 도서대출도 이 기간 동안은 하지 않으며 도서목록카드와 도서와 비교하여 분실도서와 파손도서를 찾아 보완하고 보수한다. 이 기간 동안 본 도서실을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으나 성도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

3. 도서열람 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교역자	40	30	20	41	35	30	24	24	25	24	24	317
교사	121	86	132	108	90	62	46	63	96	62	77	951
학생	527	471	433	312	326	179	170	246	247	157	152	3220
일반	189	223	170	215	132	123	96	164	179	87	125	1703
기타	12	35	20	24	10	30	32	25	65	12	35	300
계	889	845	775	700	601	424	368	522	612	342	413	6491

안토니 후쿠마지, 정정숙역, 홍신대학 출판부, 1979.

크리스찬의 자기성찰

국판, 181페이지, 2000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자기평가를 높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안정되어 있으며 더욱 효과적이고 염려를 적게 함으로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신론자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자신의 죄때문에 자기를 낮추며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로 유감스럽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속과 중생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과 부패만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아직 만나볼지 못하고 빈무덤만을 들여다보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긍정적 자아형상보다 최악의 어둠 속에 묻혀있는 부정적 자아형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크리스찬의 자기성찰》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시정하고자 시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서론: 문제의 본질 제1부: 긍정적인 자아형상을 위한 성경적 배경(바울의 자아형상, 용서의 기쁨, 옛사람과 새 사람, 성령안에서의 생활,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7장, 죄없는 완전함인가, 크리스찬의 용납, 그리스도 안에서 의 연합 각각에 대해 실제 여러 성경구절을 적용하여 다룸) 제2부: 원리의 적용(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크리스찬 친교의 기쁨으로 크리스찬이 자기자신을 보는 방법과 동료 크리스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검토하고 이 원리 적용하는 여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총현 성도님들이 죄책감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형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라 추천해 드립니다.

장 선 애 전도사 (유치부 부지도)

생활속의 윤리 (1)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이번호부터는 「생활속에 나타나는 윤리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결혼문제」라든지, 「가정」, 「이혼」, 혹은 「성」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등에 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결혼문제」를 다루어 본다.

I. 결 혼

결혼이란 전통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도로써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짝을 짓는 일만은 아니다. 해롤드 크리스텐센(Harold Christens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살아 있는 기간동안 가장 강하게 시인되는 사회 제도로써 성(性)을 통제하는 사회적 방법이며, 동시에 짝을 지어 살아야 하는 성인들에 대한 책임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 생활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1. 성경의 결혼관

이 문제에 관하여 오토바브 (Otto Baab)은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형태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여가장(女家長) 결혼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권위아래 있는 결혼상태를 말하는데 이것 역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이들이 어머니의 통제아래 남아 있고 남편은 그의 아내 집에서 어느정도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야곱과 모세의 경우이다. (창29:1-3, 출2:21-22)

둘째, 아내가 자기 친족과 남아 있으면서 남편이 때때로 찾아오는 경우다. 예를 든다면 삼손이 딘나에 있는 그의 아내를 방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삿15:1)

2) 부가장(父家長) 결혼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결혼 상태를 말하는데 족보나 인구조사 명단에서 나타난다. (창5

장) 여기에는 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남편의 아들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을 뿐이다. (민1:1-3:39, 26:5-62, 룖4:18-22)

3)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결혼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을 여러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 있던 형태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창16:3, 29:18) 그러나 한 남자가 아내를 여러명 취할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과 불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하11:1-22)

4)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결혼이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도 나타날 뿐아니라 (창2:24) 신약에서는 하나의 규칙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마19:5, 고전6:16, 엡5:32) 아울러 이스라엘의 법은 이 제도를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출20:17, 21:5, 레18:8, 16, 20, 20:10, 21:13, 민5:12, 신5:21, 22:22, 24:5)

5) 동족이외의 결혼이다.

이것은 자기 종족권위에서 일어나는 결혼형태다. 예를 든다면 모세와 요셉이 각각 이방인과 결혼한 경우다. (출2:21, 창41:45)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가나안 혼혈 종족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하게 되므로 서로 결혼하게 된 것은 종족외의 배우자와 결혼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를 단호히 금하고 있다. (스9:2-)

6) 동족간 결혼이다.

이것은 다른 종족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관습에 따라 자기 종족끼리 결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씨족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안에서는 동족결혼이고 비이스라엘과는 동족외의 결혼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구하는 내용에서 (창24:4, 10), 그리고 야곱이 아내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찾지 않고 그의 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취한것(창28:1-12)과 같은 것이다.

7) 수혼(嫖婚)의 형태이다.

이 결혼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그 과부된 자와 결혼하는 제도다. (신25: 5-10) 이러한 결혼의 목적은 이스라엘 여인이 종족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족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혼관을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형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때 일부일처제라 하겠다.

또한 결혼이란 타락이전의 제도로써(창 2 장) 남녀 간에 서로 돕고, (창 2: 18) 서로 위하여 (창 2: 21-22), 상대방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창 2: 23), 남녀의 정체를 잃지 않고 양극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union)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주적(universal)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인격적, 성적, 정신적 결합으로 양성이 공동 협력할 것을 언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지위나, 목표나, 은총에 있어 대등하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편에서의 연합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로써 인간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은 결혼을 인도하시며 나눌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삶의 규칙을 세우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 갈 것을 보여 주신다.

2. 결혼에 대한 윤리학적 이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결혼을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도덕적 행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다.

1)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이루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것은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종족을 보존케 하시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 (엡 1: 12) 더 나아가 결혼이 하나님께서 작지어 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남녀를 한 몸으로 결속시키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잃어 버릴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므로 결혼을 소명(vocation)이라 할 수 있다.

(Karl Barth "On Marriage")

2) 결혼은 남자와 여자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이것은 결혼의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녀는 결혼을 통하여 평생토록 같이 살 수 있는 반려자가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골 3: 18-19)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어느 한편도 다른 한편의 법이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반려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사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결혼할때 신랑과 신부는 두 가정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신랑과 신부의 계약임과 동시에 두 가족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관계는 세 가정의 새로운 관계에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결혼이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성경에서 친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다. (고전 5 장)

구약의 경우에 혈족간 결혼에 대해 사형(레20: 11) 과하고 있으나 신약에서는 바울의 경우 교회적 책벌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침범하거나 경감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형벌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같은 태도는 간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약은 둘 다 사형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간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죄가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정당한 구제책으로 이혼을 정했다. 이렇게 간음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죄의 성질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교훈에서 결혼관계가 신성한 것이며, 외적관계가 신성한 것을 명백히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음란하고 호색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마음의 간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타당할까?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율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바울사도도 이에 대하여 규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고전 7: 7) 그러므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맹목적이고 성급한 충동이나 착상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행동이어야 한다.

(*)

11월중 새 교우 명단

성경통신 11월호

새 교우 여러분을

모 범 답 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 안암 구역 김용인 성북구 안암동 3-36
 돈암 구역 정태근 성북구 안암동 2 가87번지 7 / 1
 동대문구역 강영원 종로구 연지동96-2 (덕우사내)
 광희 구역 이영희 중구 을지로 6 가
 수유리구역 이순덕 도봉구 쌍문동410-36 11/3
 장위①구역 정정남 성북구 상월곡동 7 가124번지
 장위①구역 정준애 성북구 상월곡동 7 가124번지
 광희②구역 정주홍 중구 을지로 5 가99-21 4 통
 장신②구역 김재웅 종로구 창신동동대문상가C동431호
 창동 구역 김명실 도봉구 창 2 동505-13 27/6
 삼양①구역 민병일 삼양동
 돈암 구역 김선숙 성북구 돈암동392

● 2 지구

- 쌍림①구역 황순영 중구 장충동 2 가 101
 면목②구역 김미란 동대문구 면목 2 동198의26 21 / 3
 신당②구역 정영길 중구 신당동387의2 호 24 / 3
 홍익 구역 장용운 성동구 상왕십리동 330의 1 호 22 / 2
 전호 구역 허광만 강남구 천호동 천호국민학교
 흥① 구역 손옥지 중구 신당동57의288 2 / 1
 흥① 구역 양귀선 중구 신당 5 동52의 4 9 / 3
 행당 구역 고인규 성동구 행당 1 동 300 13 / 2
 장충①구역 김천경 중구 장충동 1 가56의33 3 / 1
 구의②구역 김선기 성동구 구의동251의45 3 / 5
 쌍림②구역 박성훈 중구 쌍림동117의 2

● 3 지구

- 이태원구역 김금선 용산구 이태원동258-149 18 / 4
 응봉 구역 조금선 성동구 금호동 4 가6번지 8 호 21 / 8
 자양 구역 이인순 성동구 자양 2 동산54번지 20 / 3
 선정①구역 송화선 중구 회현동 1 가30번지
 도곡①구역 이영철 강남구 대치동 304-8 22 / 5

● 4 지구

- 필동②구역 전길홍 중구 필동 2 가93번지
 대방 구역 김진창 관악구 대방동44번지 296호 5 / 1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경	영	36	라	
2	우	상	37	헛	바, 물라
3	0		38	여	호와
4	x		39	x	
5	나		40	진	홍, 토기장
6	49 : 26		41	나	
7	4, 3, 1, 2		42	다	
8	롬10 : 15		43	불, 칼	
9	발		44	가	
10	예수님		45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열방과 열국중 남은 백성	
11	가		46	나	
12	양(어린이양)		47	가	
13	나		48	라	
14	라		49	다	
15	가		50	하늘, 이름	
16	다		51	x	
17	54 : 4		52	아이	
18	나		53	살구나무가지, 꿀는가마	
19	다		54	8, 19	
20	라		55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것 스스로 음탕이를 판것	
31	가		56	가	
22	라		57	2 : 26	
23	다		58	나	
24	가		59	다	
25	나		60	x	
26	생각, 결		61	진실, 공평, 정의	
27	3		62	선	
28	56 : 7		63	다	
29	땅, 기업		64	x	
30	금식		65	6 : 19	
31	다		66	라	
32	0		67	7 : 16	
33	0		68	목소리, 교훈	
34	80 : 15, 16		69	나	
35	가난한자		70	추수, 구원	

상도①구역 김정순 권악구상도 2 동212번지65호 2 / 6

필동①구역 조연희 중구필동 3 가 6 번지

인현①구역 문효열 중구초동52번지 1 호

● 5 지구

화곡①구역 정분선 강서구염창동95번지 3 호29 / 4

화곡②구역 문유덕 강서구내발산동561- 1 목화연립주택라동11

반포②구역 김신행 강남구잠원동신반포2지구보라아트110동201

을지①구역 김병준 중구산림동250번지4호신한여관5 층

* 축하합니다(11월중 결혼)

• 이상복군(백봉희씨아들) 7 일 오후 1 시 본교회당

• 전영식군(전동유씨아들) 8 일 오후 2 시 본교회당

• 임창식군(박성기권사 아들) 9 일 12 시 본교회당

• 조은희양(김후전집사 딸) 10 일 오후 2 시 본교회당

• 김효정양(김인관집사딸) 10 일 오후 3 시 태극예식장

• 민영기군과 고복순양(제일 성가대원) 6 일 오후 1 시

• 정진성군(김복희권사아들) 14 일 오후 1 시 기독교 태화관

• 이성우군(배정자씨 장남) 17 일 오후 2 시 행복예식장

• 이경수양(고정일집사 딸) 19 일 오후 1 시 천한 아카데미예식장

• 양은혜양(유치부교사) 19 일 오후 3 시 L. C. I. 예식장

• 노경모군(송옥림씨 아들)과 김영실양(중동부교사) 20 일 오후 1 시 본교회당

• 권영남양(동송구역) 22 일 오후 1 시 수도예식장.

• 이명진군(취경구역)과 이명자양(잠실 4 구역) 26 일 오후 2 시 L. C. I. 예식장

• 김은조군(삼양 3 구역) 27 일 12 시 본교회당

* 권찰 수첩 *

효과적인 구역심방

지난 번에는 심방자의 내적(內的)인 마음의 준비에 대하여 논술한 바 있거니와 이번에는 외적(外的)인 준비와 실제적인 심방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적인 마음의 준비와 외적인 준비 모두가 기도없이 안된다는 것이다.

1.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심방 나가기 위하여 함께 동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구역원 각 가정과 그 식구들의 이름을 들어 평소에 기도로 준비해야 서로 만날 때, 반갑고 은혜가 된다. 뿐 아니라 심방하는 자기 자신이 덕을 새우며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가 바로 된 구역원의 심방을 받는 가정과 개인은 틀림없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 성경전서와 찬송 그리고 필기 도구도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보다 앞서 성경을 평소에 부지런히 읽고 공부할 것이며 찬송도 익숙히 잘 부르도록 준비함이 좋다. 그래서 예배 보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언제나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의 부탁이나 약속은 그 때마다 기록하여 두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회장>

3. 복장이나 화장도 단정해야 한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에 갈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4. 심방을 가서 주의할 일

1) 인사를 친절히 하고 다정하면서도 정중해야 한다. 아무리 반가운 친구 사이라도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2) 방에 들어가서는 앉는 좌석을 바로 정해서 앉아야 한다. 주동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앉되 출입문을 향하여 앉아야 한다.

3) 앉는 즉시로 성경과 찬송등을 먼저 내어 놓고 묵기도로 그 가정의 평안과 성령님의 역사 하심을 빌 것이다.

4) 말에 조심할 것이니 먼저 목사나 그 밖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직분자로 말하게 할 것이며 은혜스럽고 덕을 새우며 축복된 말만 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권찰들 거리만 심방 할 경우에는 부르기 쉬운 찬송을 택하여 부르고 성경은 가급적 합당한 구절을 읽고 설교는 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만 제시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일에 결석한 성도인 경우에는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은혜가 된다. 기도는 지나친 열심으로 책망이나 공격조의 말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복을 비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주의 천사로 연주케 하소서

이 해 봉

(청년부 회원)



12월에 들어서 예외없이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거리에 등장하고 각 백화점과 상점에서는 축제무드를 자아내고 있다. 축하의 대상인 아기예수님은 말 구유에 놓였는데……. 구유에 있네, 꼴 위에 자네, 어릴때 부터 입술에 익은 타인지 별 감흥이 없었는데(오히려 구유라는 단어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겼던 무지함) 구유가 먹이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이제 그 찬송을 부를때면 가슴이 싸아해 짐을 느낀다.

주일학교때 성탄절은 얼마나 가슴을 울렁이게 했던가! 노래하고 연극하고 퐁퐁 언 발을 선생님의 뺨쪽구두에 밟히고도 오히려 송구해 찔끔거리리는 눈물을 삼키고 절뚝거리며 졸졸 선생님 뒤를 따라다니던 일…… 산타할아버지하고 악수하고 감격해 노래를 못하던 일…… 나는 지금 주일학생들에게 그렇듯 존경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울 뿐 이전만 하얀태양이 기운이 더해 갈때 즈음 난 벌써 올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받을 선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주님 저 해봉이에요. 이번엔 무엇 주실거예요?” (이 염치없는 요구,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피의 값으로 산 바된 자녀의 권리로서 하는거지……) 소망을 품고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너는 예물을 준 바했느냐?” 우물쭈물……

그리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양로원, 고아원, 불우이웃을 돌아보는 것보다 보다 나은 방법은 없을까 모색하던 중 작년에 시작한 경찰서 유치장 전도가 떠올랐다. 한 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합리적인(?) 핑계로 계을렀던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급해짐을 느꼈다. 급한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지금부터라도 아기주님 맛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중부경찰서 유치장 전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유치장 전도하면 처음 전도갔던 일을 잊을 수 없다. 모두들 힘차게 기도하고 박진감(?)있게 돌진하건만 뒹구는 낙엽을 발로 차면서 태연을 가장해야 했던 못난이, 발로만 듣던 곳, T.V 로 책으로 알던 곳, 이곳 저곳을 지나 진짜 천창앞에 섰을 때

그 당혹감, 펜스레 어색해 벽 쪽으로 자꾸 기어붙는데 속 모르는 사회자 음악부장이 고 자꾸 앞으로 나오란다. 오! 제발 여기가 종사오니…… 모두들 긴장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했을 때 그 폭포같고 강물같이 밀리던 은혜, 나는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천장 이편에 섰다고 무엇을 자부한단 말인가. 뚜렷하게 외관상 드러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마음과 생각을 스크린에 비쳐 처벌한다면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나올 수 없었던 그때, 그 감격.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까지 밝혀질 것이요 이 은밀한 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처소로 몰락해 내려간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프게 파고 들었다. “내 양을 먹이라” (요21:15) 오 주님! 오! 주님, 이 생각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간증이 끝나고 구원초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들이겠다고 일어서고 그들의 손을 잡은 형제 자매들의 흐느낌의 간구가 그것을 증거했다. 옥 문열고 갇힌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남을 감사하며 충현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천장을 떠날때 모든 이들의 그 충만함, 천장이 눈에 익을 즈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쥐라는 이름의 동물이 이곳저곳 구멍으로 들락거리려 놀란 기억들…….

그래요 주님 이것으로 성탄준비를 하겠어요 결정하고 시행에 옮긴 곳이 중부 경찰서 유치장이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죄명을 살펴볼 여유까지 생겨 나에게 적용(personal appriation) 시켜본다.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고, 새벽기도 마치고도 육교밀을 애용한 부끄러움, 1 시간 동안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사람을 통해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전도에 임한다. 그리고 느낀다. “주님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아기 예수님 그냥 오소서”

오늘도 아코디언을 들고 유치장에 들어선다. 가끔 악보에 없는 음을 눌러 모든 전도대원을 긴장시키며 기도한다. “주의 천사로 이것을 연주케 하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가대원·구역권찰·주교교사 임명

교회는 1980년도 성가대원, 구역권찰, 주교교사를 12월 2일 주일부터 매 주일 3부 예배시간에 임명했다. 임명받은 각 부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호 월간충현에 게재되었던 주교지도, 부장단의 명단 중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성가대원 명단

1. 제일성가대

대장: 차신득 지휘: 김연술 반주: 이승순

소프라노

정연희 박명련 김순련 황계화 김숙연 고재은 임종숙
이혜숙 임명순 김창임 민경옥 이춘태 윤명숙 박영순
김명숙 이희숙 신계은 안미영 김영휘 이명숙 호순환

앨 토

박현주 전은실 박영복 김선희 강영옥 정명실 김보영
박필옥 임정화 윤석춘 남경희 고희재 안영자 황유경
지은영 배은희 이인옥 김영자

테 너

이원웅 김재중 박종현 한기호 이일형 이충복 김광호
박두현 홍성직 김순제

베 이스

노광현 차신득 이정우 백기현 원용철 이일영 황철규
손정희 이희상 이재훈 전건홍 이일규 주원석 은종원

2. 제이성가대

대장: 김찬재 지휘: 정국진 반주: 조희영

소프라노

김혜숙 김영애 이명희 임옥빈 김희자 김태임 김영래
이옥주 남명숙 이은순 김영심 최진숙 차미화 박경희
장효선 김희숙 김옥경 이은미 오은송 허춘자 김인숙

앨 토

강정자 이영혜 이명희 한운만 장춘혜 김영배 김정애
황유경 권석연 유은숙 강정화 김성자 조현숙 김성자

테 너

김전재 한승일 허성국 최 진 전명수 김은태 김성룡
강만수 이병근 임창식 권승균 김종수 김창수

베 이스

이근수 이찬수 김성길 오영종 김희수 이성훈 문영춘
강동길 김형주 이태균 이효상 구자승 이병학 김창수

3. 제삼성가대

대장: 이 훈 지휘: 김영준 반주: 윤경숙

소프라노

김미란 박연숙 이정애 이정애 이재신 정미옥 신지은
최현숙 연화숙 유명숙 조순환

앨 토

김복임 김숙자 김은숙 김지은 김청순 박경자 박명자
박진엽 방소애 오갑성 윤여진 이경순 이도영 이은희
이정순 이순희 정영자 정운순 정정희 조영숙 조윤월
최태옥 한숙원 한영숙

테 너

강구용 강성수 원세연

베 이스

김수영 김원일 박장교 신판홍 이 훈 전영석 조정형
주영철

4. 여성성가대

대장: 전인화 지휘: 최찬후 반주: 서은숙

소프라노

최순자 박옥식 김화춘 박순봉 변순복 최봉숙 유현숙
문명애 김일순 박희희 조미경 홍순명 장옥순 이현숙
안경덕 박혜숙 장영희 변성옥 윤성자 최영실 이군자
이송희

메 조

민은애 전인화 김진만 김영남 장영옥 유말선 이귀분
김성신 이춘실 조춘복 하영자 김춘지 현 계 고경자

* 교 회 소 식 *

박현숙 양선자 이명자 남정애 유정자 백숙자 도성희
이정자
앨 토
어은애 전원향 김희옥 우문희 최영호 김명숙 한동숙

문선옥 조동숙 김영숙 남수현 김능실 장보길 유금열
서현숙 장명숙 최상선 김영자 안소현 변성자 한금희
이명희

구역권찰 요원

제 1 지구 (41구역) (41구역)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상 계	한경일	고신옥	김규태	이옥현 유기영 송정자
도봉①	한경일	김창린	김창린	박순희 정옥금
도봉②	한경일	박옥식	박영식	이부진 김옥희 임옥환
도봉③	한경일	박옥식	이종국	최 순 권영자
창 동	한경일	송형섭	이호성	이정숙 이금순 노 반 장사열
수유리	최성림	이신일	소정부	최복순 강희자
우이①	최성림	이신일	이신일	전현신 김보길
우이②	최성림	최수남	이상호	전정숙 이계자 김명자 이점여
번 동	최성림	백현옥	이한승	황재연 조옥환 김정숙
삼양①	최성림	민원옥	민원옥	정일향 김남진
삼양②	한명옥	김효정	송기홍	이영남 정운순
삼양③	한명옥	김효정	황의만	안순자 박정서
삼양④	한명옥	백영희	황현철	이귀옥 유재춘 박복실
장위①	김방진	김정숙	장명규	전희순 서영자 전광숙
장위②	김방진	최경숙	최성현	최태옥 이승자 고금자
장위③	김방진	최천금	김정선	방소애 이인경
미아①	한명옥	정삼엽	염숙현	염숙현 염미숙 김정애
미아②	한명옥	백죽실	김성택	이귀례 김춘자
월 곡	김방진	이태실	이태실	김운실 이죽화
길음①	위영환	김병숙	정재모	이흥순 김혜숙
길음②	위영환	최복인	김인석	남일호 김명자
정 능	위영환	이옥인	하대선	권명선 하춘자 김순례 오경옥
종암①	위영환	민순애	이영일	이명옥 이명희
종암②	위영환	정양순	김종현	추순자 이계문
안 암	위영환	남순택	최상규	김정옥 백희경 조미경
보 문	김창배	조계전	김영록	양숙란 양영자 신임균 정연이
돈 암	김창배	이봉재	김인관	김희옥 유옥숙 박정자 김병임
삼 선	김창배	이점순	이전국	김연옥 김연수 최해숙 김정섭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동소문	김창배	심 숙	심 숙	이정희 이말분 김일순
성 북	김창배	이정남	김남조	박은숙 이의순 한경석 홍희승
청량리①	최석주	김명숙	박진열	박진열 유해숙 고숙기 조혜숙
청량리②	최석주	김명숙	강은원	홍재옥 박경애 이후덕
송인①	최석주	성복순	오석부	김순이 백봉희 조덕순
송인②	최석주	차순정	경홍옥	한선희 경홍옥
창신①	최석주	임화순	이규민	정주한 한금례 이정자
창신②	최석주	임화순	박인세	이인자 경명옥
동 송	홍중섭	김 순	송영주	박길순 황규선
연 건	홍중섭	김순현	이성원	신순화 최선화 김주일
동대문	홍중섭	김정임	이재옥	고순산 이순애
광희①	홍중섭	김순애	조성행	안옥실 권오순 노순경
광희②	홍중섭	김봉재	김영수	이순덕 김만준 고영해 서종남

• 제 2 지구 (43구역)

전 호	윤명식	양정옥	서동석	문점애 박형석 이혜강
돈 촌	윤명식	이진주	이상현	신원택 이혜경 장영자 최관수 김순자
길 동	윤명식	문명숙	이형수	윤여전 박윤래 안유향
풍 읍	윤명식	계명선	김창현	최금성 김종렬 반정현 전덕희
암 사	윤명식	장순실	오정수	이영희 이옥희 백숙녀 백금순
구의①	오태희	이옥녀	오영희	이명자 유영희 장숙인
구의②	오태희	우문희	한현일	박영규 장만실 최방희
군 자	유기전	장순실	송인홍	최연주 박영자 조순희
송 정	유기전	박정희	이원진	김의순 정정자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	찰
중곡①	오태희	정불관	신종명	조부덕	한금희
		김인춘			
중곡②	오태희	정순오	엄필성	황정숙	유서규 이호재
			김송자		
중곡③	오태희	엄명진	김종구	박말수	이상금 이시향
			유병옥		
견목①	윤용규	이재춘	김영은	조남순	문경희
견목②	윤용규	유정희	한신호	최인식	임순심 임경순
견목③	윤용규	김정래	박상운	서상옥	민병식 최성도
광 우	김은호	김경희	김동원	이춘일	김복순 이인선
태 능	윤용규	허미주	양종섭	김영숙	김옥분 계순옥
중화①	윤용규	지숙원	김환기	황성래	
중화②	윤용규	최경복	서동석	조기남	정경희
장 안	김은호	이정자	김광호	김금남	한성실 임금래
갑십리	김은호	장정순	오정현	이길순	김연삼 이승희
전 농	김은호	정춘수	이정훈	홍양래	김복을 우점옥
석 관	황창용	고정임	김보일	한용화	박정아
이 문	황창용	지순분	임옥순	임옥순	한순이 윤정희
휘 경	김은호	김세동	김세동	강태련	김금순 박숙엽
마 장	김종석	공항조	정민자	차행정	정민자
도 선	김종석	이보영	정도원	유병순	김경순
홍 익	김종석	송기남	허세동	송점분	이순희
행 광	김종석	최금순	홍풍작	홍풍작	윤정애
왕십리	김종석	궁희복	궁희복	서춘자	성학기 박정구
문 화	황창용	최춘란	이희권	장희자	조상엽 박옥순
흥인①	황창용	정삼래	김천재	최진여	이인숙 김우희
흥인②	황창용	홍순이	한송규	윤정미	김순실 강인애
신광①	정석태	박석순	정운석	이옥남	조두래 최경상
			채태선	김은곤	
신광②	정석태	이영주	정정주	최봉숙	임선애 한동숙
신광③	정석태	김희생	최대원	김정환	김옥순 신금녀
			이춘자		
광화문①	정석태	서용근	김영생	이정원	최무순 소현숙
광화문②	정석태	박순옥	송환창	변경희	신정희 허경은
장충①	이태규	서상연	정광호	김관옥	홍화범 박부강
쌍림①	이태규	김순초	서일영	이귀분	차희섭 지자순
쌍림②	이태규	김정옥	김정옥	심복수	안정애
쌍림③	이태규	이현순	고계승	오화자	김성열
쌍림④	이태규	이봉남	박정태	김춘자	박진민 김선주

• 제3지구 (49구역)

성 남	김경철	서영희	허인숙	최태희	김영주	허인숙
문 정	김경철	나화봉	민태영	강정옥	김정래	강동화

구역장	장로	권사	구역장	권	찰
장 미	김경철	나화봉	이희진	강혜언	이송희 최일춘
시영①	김경철	홍연봉	박병택	전순옥	서영남 이정숙
시영②	김경철	홍연봉	박원규	홍유순	김용숙 이명숙
잠실①	박창수	조말래	최차용	박용녀	박정애 변금순
			김명주		
잠실②	박창수	조말래	이인상	윤병인	최영자
잠실③	박창수	천병희	노문환	소재숙	양명자 이운영
			조춘복		
잠실④	박창수	고선찬	이호경	김영자	장명숙 박이준
도곡①	윤종성	신재환	박성수	최영선	김 화
		김갑주			
도곡②	윤종성	이숙영	김상덕	최 규	조금자 이진모
도곡③	윤종성	김선운	차진득	김정화	김해옥 백경옥
도곡④	윤종성	정봉조	남선우	최정희	김계희
선정①	윤종성	강경자	이명자	서양순	이명자 현병애
선정②	윤종성	조필숙	김창옥	손보석	최화순 한경숙
삼 성	노광현	백도선	조인제	윤수원	박정순 윤정희
강릉①	윤종순	노영숙	김희옥	장영희	이순천
		김희옥			
강남②	윤종순	백복엽	원운철	김영남	조종원 장혜숙
강남③	윤종순	유재춘	홍주영	김연옥	조추자 이학순
강남④	윤종순	장기옥	신운호	노인덕	최현숙 정영선
		이곤녀			
강남⑤	윤종순	허윤실	김제명	김능실	배옥인 장영자
		안묘섭			
청남①	임광식	문정애	이종섭	김분선	박우순 홍명순
청남②	임광식	김순실	김인원	윤옥희	송정화
논현①	임광식	홍원선	김대호	유정일	심상순 안기덕
			남순덕		
논현②	임광식	유정수	박홍오	김정덕	현 계 안은희
			김영복		
논현③	임광식	조성은	김 순	김 순	서인희
		조병숙			
임구정	노광현	송영배	오석종	심영순	김용순 김득은
			이재봉		
신 사	노광현	신군자	김형선	최명숙	한영자 박옥희
자양①	우기전	함송현	김한진	한경분	이숙영 임인순
자양②	우기전	김은애	김영근	남은주	박희자
		한정숙			
화 양	우기전	이의복	문홍구	필기복	박영림 김복자
성수①	노광현	전인화	박신일	유말선	박경애
성수②	노광현	전인화	전원용	송경자	이춘자
이태원	신영대	박용주	이정애	이정애	조분자 이성숙
보 광	신영대	노승녀	김옥래	이숙화	김경희 유효순
		김옥래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 찰		
한 남	신영대	이현실	한무부	이숙자	문명애	최영숙
옥수①	신영대	전영화	권 용	유만녀	세정순	유후자
옥수②	신영대	최정자	한일연	김태건	김은덕	최상선
응 봉	강순용	임춘선	김연식	이득하	김순배	임순덕
금 호	강순용	박선자	문광석	이상득	서화자	신준희
		저중봉				
청 구	강순용	정순자	김용래	김용래	안인자	신혜근
약수①	강순용	최순자	최정만	최영실	김인자	이수자
약수②	김기정	박의범	이도영	이도영	김심영	서희진
약수③	김기정	정임순	김순동	김순동	김기순	신병만
장중②	김기정	황숙영	김길정	김종열	안정임	
장중③	김기정	이덕순	이창호	정양례	김옥남	
장중④	김기정	유순녀	임정우	고임생	곽도윤	
목정①	이태규	조옥섭	조옥섭	이정옥	송다오	서학순
목정②	이태규	김의자	전철금	전철금	이순희	심기순

• 제 4 지구 (40구역)

안 양	김차생	박연섭	윤봉준	차정은	최정숙	
시 흥	김차생	김운실	강봉수	신 성	김주려	
		김중순				
신 길	김차생	이정신	김영진	이학주	이병숙	
신림①	김차생	변순복	박관영	공명옥	김숙자	
신림②	김차생	이영숙	신표근	안춘자	최영숙	
		김신덕				
대 방	김차생	김병준	오해창	나음점	양숙자	한숙원
				김정자		
봉천①	조현명	김복남	김경생	김유순	박민애	안춘진
봉천②	조현명	장기옥	임남복	백순희	임정자	
		박순봉				
관 약	조현명	양정백	황영일	이규숙	이천애	
사당①	조현명	이숙녀	이순녀	이정애	김경희	
사당②	조현명	박경복	김영진	유금선	김복선	
상도①	김영삼	이순자	임무천	한정옥	김정순	이난숙
				최봉연		
상도②	김영삼	김매녀	김매녀	구영인	전경애	
		손명순				
방배①	김영삼	김복녀	김복녀	김영애	주귀남	박정림
방배②	김영삼	최영호	최영호	김태집	이상희	박해경
반포①	이동규	김상순	강덕수	박영숙	서석임	
반포②	이동규	김정임	김정임	안숙자	권중순	
반포③	이동규	김조영	김조영	이명자	유혜미	자유경아
여의①	이동규	김영옥	정인중	신명희	이인숙	임평순
				한영숙	정광숙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 찰		
여의②	이동규	변천순	김수광	이정자	박명영	김인호
				장문숙		
서 강	전희규	최혜영	김종주	김영희	장석란	이해숙
				심정희		
염 리	전희문	김애순	현홍식	민양순	오갑성	권윤행
마 포	전희문	유분홍	오덕희	오덕희	신정숙	
이 촌	전희문	김동옥	안익태	전정애	설옥자	
용 문	고병옥	지영실	최찬후	이춘실	최순영	나태순
청 파	고병옥	김동호	최명환	라종애	김금순	박현숙
용 산	고병옥	최홍실	이승철	나영의	김미자	유정자
				이남수		
후 암	고병옥	조순덕	윤인숙	박순남	박순옥	
		윤인숙				
회 현	고병옥	이학주	김성덕	남미희	김현자	이종숙
		방계윤		김영자		
필 ①	이웅선	윤순탄	윤순탄	유일옥	정순이	김업순
필 ②	이웅선	김이숙	엄기채	임정자	유창순	
필 ③	이웅선	안인현	안인현	이춘재	문옥순	김분녀
필 ④	이웅선	전성조	박종남	이혜숙	변인옥	최정숙
필 ⑤	이웅선	박정순	김화준	김반월	김화화	
인현①	김의철	의희수	윤인현	안태례	지성애	지경애
				유금열		
인현②	김의철	장수정	장수정	유금자	도성희	
인현③	김의철	최귀영	김중복	채선옥	장재후	
		김중복				
진 양	김의철	오희명	곽선부	곽선부	이규현	전순임
		어은애		한구자		
화 원	김의철	강유점	정채금	이금옥	정채금	
		정선조				

• 제 5 지구 (46구역)

인 전	손동운	정선화	정선화	조명녀	구옥순	
부 전	김한울	나봉녀	한형식	구정혜	안소현	
오 류	김한울	정선화	이 옥	한성숙		
광 명	김한울	이수자	김인곤	이경호	박승호	김정임
개 봉	김한울	이영숙	안종옥	이경호	박승호	김정임
공 항	김한울	박삼조	박삼조	손명혜		
화곡①	김한울	김정숙	박두현	김연균	박종민	김수열
				남궁규원		
화곡②	김한울	이강희	박춘복	박인옥	이연섭	신순동
화곡③	김한울	김준경	이 훈	조동숙	이정애	
목 동	김한울	김옥선	김옥선	전영희	우종아	
구 로	구승률	노희관	김태희	박영자	변순희	김귀녀
				홍정숙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당 산	오승률	유미희	신수옥	신수옥
동 교	마성락	김화련	최무길	양선자 홍경선 조 숙
신 촌	마성락	이명자	심정우	김영자 김선희
		김원해		
망 원	오승률	김순복	윤광일	한정순 김수자
		오춘화		
서 교	오승률	여옥기	이남호	조경옥 강순남
		김경숙		
홍은①	황기성	조신애	조희철	한경화 하복용
		이문자		
북가좌	마성락	곽성옥	장병기	박인애
남가좌	마성락	양창용	이재원	김태숙 김은숙 정수자
연 희	마성락	양경희	이태성	홍영숙 홍소자
		최정순		
응암①	황기성	안차녀	김철영	전명옥 김봉숙
응암②	황기석	김상권	이희상	이오목 박실녀 이옥숙
역촌①	황기성	최무정	설관호	김영옥 전혜선 정우남
역촌②	황기석	윤희순	전남일	김종순 김정자
구피발	김영개	박순규	김후전	원형신 김후선
갈 현	김영개	김택선	오태용	고남균 이경희
		김영희		
불 광	김영개	김복희	오태용	최진숙 임순애
대 조	김영개	이순근	이순근	김옥희 이계철

구역명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홍은②	송순일	임순천	김인순	박홍순 김인순
홍 제	송순일	김창숙	안정엽	안정엽 김영숙
서대문①	송순일	배월애	강모용	최태옥 차순복 김귀자
		최경애		
서대문②	송순일	이길남	백의주	백의주
청 운	송순일	신영순	신영순	김원화 김명희
효 자	조선근	이명자	김과경	김병실 이민재 조성남
			김성애	
가 회	신현상	김두성	강정선	윤옥녀 나봉도 김숙자
종 로	신현상	전순자	전재룡	이현숙
혜 화	신현상	원도화	이홍선	이홍선 박순옥 이순희
			김길득	
명 료	신현상	석옥순	김동삼	경순영
초동①	조선근	이희원	주원홍	황순화 김복임 조윤월
초동②	조선근	이희원	정은표	송순전 안순이 박경자
을지①	조선근	서 옥	하영자	하영자 정태완
을지②	조선근	서 옥	서 옥	강순자 정태옥 배귀녀
			박영숙	김영희
중 부	이원철	김순호	김은숙	채진아 김은숙
오 장	이원철	김순호	정정희	정정희 김병순 김봉실
중무①	이원철	유갑순	김재균	김진만 김희숙 정옥남
중무②	이원철	김남옥	박병은	공순자 한선옥

주일학교 교사명단

1. 어린이 새신자부

지도 / 안석렬 전도사	부장 / 정운석 집사
부지도 / 김은숙 전도사	부감 / 서동석 · 명정옥 집사
남교사 / 박광석 이동명	문광석
여교사 / 설명옥 백옥자	정순이 박양덕 김미애 박종금
	유옥련 최미희 안정숙 윤숙희 조순자 김주옥
	김정순 이미자 정은실 이해봉

2. 영 아 부

지 도 / 정소영 전도사	부장 / 이승철 집사
부지도 /	부감 / 김중구 · 백옥인 집사
남교사 / 한준거	김상규 양종섭 송원열
여교사 / 임옥순	이승화 김영혜 조추자 홍풍작 김경림
	오인숙 최태옥 백화순 윤봉자 이병희 오혜숙
	한경숙 고제상 장정남 정옥남 김종순 김미자
	전영희 최영선 박덕양 문영란 현병애 최영숙

3. 유 치 부

지 도 / 정연희 전도사	부장 / 최상규 집사
부지도 /	부감 / 이성원 집사 이희수 권사
남교사 / 박찬섭	김영길 홍치순 양국석
여교사 / 광영자	김경옥 이경애 이경자 허순이 장성혜
	김정자 한형실 김순화 정숙자 노혜정 김철순
	이홍자 유금순 박혜영 길은주 윤순희 한정은
	김정자 정금수 임현진 박혜숙 이애영 이용경
	이순자 장경애 홍명순 한명신 이경현 한영옥
	홍정옥 고소정 지경애 정영선 김은희 이영미
	장영저 정현영 김정자 김선미

4. 유 년 부

지 도 / 이양우 전도사	부장 / 강은원 집사
부지도 / 김장근 전도사	부감 / 최무길 · 이정애 집사
남교사 / 김승근	이철호 김경생 이창호 김연석 김종률

* 교회소식 *

김영수 김관봉 윤석산 노경모 기정수 양병진
조영구 이도한 김영환 권 용 이태영 송한옥
홍성철 정정식 양영태 이재식
여교사/한월남 박진숙 최하자 박이숙 정경희 정옥이
이홍선 최경애 유영애 강영옥 박도윤 임춘자
이경심 김송자 김진선 최영선 나판임 김경자
박점숙 김말자 최은미 이옥자 송명록 이성은
한성실 윤정미 신성자 김현미 박혜원 최규숙
추정희 안란희 김미선 이경숙 신경숙

5. 초 등 부

지 도/ 부장/ 김영근 집사
부지도/ 이상원·김양래 전도사 부감/오정수·양승희 집사
남교사/ 황현철 신종명 윤봉준 오영희 박정태 이영일
박진순 김중선 이승계 정원근 김철영 최석진
한광조 양인환 이영수 이의순
여교사/이진희 마미화 김시주 김명순 인정옥 장화숙
김현숙 한정미 김수희 이은순 신은자 임종란
김유순 이성희 김혜숙 채선아 유옥자 박수경
차의숙 유요안나 김정영 김청옥 홍지향 윤홍자
김수련 최영화 조숙희 한영준 심혜숙 손명희
전길복 정정남 강영미 천광혜 양영숙

6. 중 등 부

지 도/ 남성호 강도사 부장/ 박승준 집사
부지도/ 김정훈·김순옥 전도사 부감/오정현·문옥순 집사
남교사/ 김영은 허세동 김종연 현홍식 권명옥 황명길
이병두 한정배 홍준식 김정필 임기재 이성섭
이종연 한현일 정재모 서진을 이한승 정홍판
김정복 김영철 김동렬 김일주 김대용
여교사/ 최명자 정희공 김정화 김영심 최선희 박영희
이교숙 이우선 김승연 신정희 김정자 김은숙
박영자 조덕희 정숙향 김은백 이상순 김수진

7. 고 등 부

지 도/ 김석원 강도사 부장/ 김광선 집사
부지도/성주진·김신성 전도사 부감/ 오해창 집사 공향조권사
남교사/ 이상현 이형수 이종국 윤광일 김인석 노문환
황의만 신평근 안현웅 김희성 신재성 장주영
안석현 남궁은 권명상 강태영 안동현 황영일
안용수
여교사/ 오신숙 김영숙 유희섭 조경옥 김해민 정경자
조증선 김덕희 이인숙 이경선 김선자 유순원
최정숙 김귀자 김혜숙 박춘자 박봉진

8. 대 학 부

지 도/ 윤형철 목사 부장/ 윤인현 집사
부지도/김남수·김경성 전도사 부감/김보일 집사 김상순권사

남교사/ 오태용 윤완철 장충균 김환기 장주석 김종주
임정우 김성주 정영수 김승중
여교사/ 최 규 안춘진 김경희 김정애 이정애 김수열
임옥란 이충옥 이인실

9. 청 년 부

지 도/ 이승근 목사 부장/ 박재용 집사
부지도/ 김연이 전도사 부감/송기홍 집사 손명순권사
남교사/ 손경수

10. 장년 새신자부

지 도/ 이성봉 목사 부장/ 문홍구 집사
부지도/구명신·정금숙 전도사 부감/박인세·이명자 집사
남교사/ 송인홍 서일영 이 옥 이원찬
여교사/ 유분홍 정영수 허인숙 이숙화 정정자 백도선
안유향 유미희 이순녀 최관수 노희춘

11. 장 년 부

지 도/ 김종택 목사 부장/ 이영세 집사
부지도/ 부감/ 최대원 집사 김상권 집사
남교사/ 정광호 김영생 김재균 신윤호
여교사/ 천병희 지숙원 서상연 김동호 송형섭 김순호
심 숙 이인경 문정숙 최경애 이신일 서용근
김영희 유순녀 방계운 임화순 조복덕 서춘자
김병준 이옥인 김증복 김경숙 김정임 박영엽
최경복

12. 노 년 부

지 도/ 김재창 목사 부장/ 강모용 집사
부지도/ 박현모 전도사 부감/엄필성 집사, 김정옥권사
남교사/ 정영남 김경식 이갑재 서동춘 김예권

1979년도

월간충현 합본호 발간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1979년도 1~12월 의
(제61호-72호)의 합본호를 내년 1월 말경 발
간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관하고 있는 월간충현 (1979년
도분)을 합본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 1980년 1월 6일까지

● 합본 실비 2,000원

● 월간충현 1979년도 1~12월호를 월간 충
현 편집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여교사/ 이길남 김창린 백죽심 임경순 김순초 장순실
홍원선 이덕순 황정숙 김정자 이명자 박우순
노영숙

13. 산업전도 교육부

지 도/ 유재일 강도사 부장/ 최성현 집사
부지도/ 김순애·현정남 전도사 부감/ 조성행 집사, 황숙영원사
남교사/ 유원열 전용원 이남성 최병식 장병기 전남일
김대호 한송규 김구현
여교사/ 박두이 최혜식 엄의용 유순자 최정숙 김만순
장성숙

14. 선 교 부

지 도/ 김영희 전도사 부장/ 남선우 집사
부지도/ 조준상·유국남 전도사 부감/ 신동수 집사 안윤진원사
남교사/ 조관식
여교사/ 최명옥 송양원 임태주

15. 새 가정부

지 도/ 윤영탁 목사 부장/ 박성수 집사
부지도/ 김경신 전도사 부감/ 조인제 집사, 안인현원사

교사총회안내

일시 / 1979년 12월 27일 (목)

오후 7 ~ 9 시

장소 / 본당 및 각 부속건물

진행 / 예배 (전체)

1979년도 보고

1980년도 계획 및 임원

※오후 6시부터 식사를 제공

교육위원회

각 종 통 계

1979. 11. 4 (매월첫주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 일 저녁에 배 후
- 매주 수·목요일 저녁에 배 후 교회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 (20분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저서서「경기도 광주 초월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207	396	605	주	장년새신자부	31	54	81	
		II 부	424	1,013	1,437		중 등 부	147	150	297	
		III 부	397	834	1,231		고 등 부	153	154	307	
		IV 부	198	482	680		대 학 부	62	74	136	
배	주 일 저 녀	218	364	582	일	청 년 부	72	100	172		
	삼 일 저 녀	145	363	508		장 년 부	24	294	318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20	36	56	학	노 년 부	33	101	134	
		영 아 부	154	126	280		산 업 교 육 부	19	68	87	
		유 치 부	178	154	332		선 교 부	26	49	75	
		유 년 부	201	212	413		새 가 정 부	10	17	27	
교	학	초 등 부	210	210	420	교	계	2,929	5,253	8,182	

1979년 일지

1 월

- 1 일 신년예배
- 3~11일 단기수련회
- 7 일 주일학교 새가정부 개교
- 21일 오중락 장로 장례식
- 28일 제 5 회 선교주일
- 29일 주일학교 선교부 개교

2 월

- 7 일 미국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와
자매결연(당회장 / 이종운 목사)
- 24일 구역장 실무훈련

3 월

- 4 일 예배시간 일부변경(4 부예배 / 오후
3 시30분에서 오후 2 시로)
- 4 일 제삼성가대 발족(지휘 / 김성호
반주 / 윤경숙)
- 24일 제 1 회 어린이초청 전도집회(어린이
새신자부·유년부·초등부합동)
- 28일 유치부 주간성경학교 개교

4 월

- 5~8 일 춘기 성례식
- 15일 부활 주일
- 30일 장로취임·장립식(고병욱장로,
신현상·김경철·우기진·손동운·
노광현집사)

5 월

- 1~5 일 이집트주재 이연호선교사 일시 귀국
- 9 일 신현교회개척(강원도정선군/청년부)
- 10일 성경학원 주간반 신설(목·토)
- 12일 경로회
- 14~17일 군중사병훈련(1 사단 / 110명)
- 15일 당회장 김창인목사 제 2 회 선교사
세미나 참석차 출국(홍콩 / 6 월20일
귀국)
- 16일 서현교회개척(강원도인제군/
남전도회)
- 19일 제 1 회 어린이 성가합창제 출연

(초등부성가대)

- 27일 전교인성경암송대회(마태복음5-7장)

6 월

- 1~30일 총동원전도의 달
- 6 일 부현교회개척(강원도인제군/
전도위원회)
- 12일 지금산장로 이민(장로)
- 12일 이창준장로 장례식
- 12~15일 기도원 부흥회(강사 최훈목사)
- 18~22일 제 5 회 농어촌교회교역자 초청훈련
(충원기도원)
- 26~29일 진중세례식(2,000명)

7 월

- 5~9 일 제 8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 11일 이집트선교사 이연호목사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순직
- 17일 백성통목사 아르헨티나선교사로파송
- 25일 고 이연호선교사 추도예배
이집트 선교사로 김신숙전도사
(고 이연호목사 사모) 파송예배

8 월

- 1 일 구역단위 철야기도회 실시(매일)
- 13~18일 당회장 김창인목사 해외여행(북·남
미)차 출국(10월25일 귀국)

9 월

- 2 일 교회설립26주년 기념예배
- 3~6 일 군중사병훈련(제6126부대/350명)
- 11~15일 기도원 부흥회(강사/ 정문호 목사)
- 30일 월간충현 특별호발간(116페이지)

10월

- 11~14일 추가 성례식
- 15~16일 교사단기교육
- 17~20일 군중사병훈련(제5213부대/130명)
- 28일 장로투표(이창업·김원선·오진국·
박치민·정하우·이병학집사 피택)
- 29일 홍콩주재 홍종만선교사 일시귀국
(11월 8 일 출국)
- 31일 이준교목사를 애급선교사로 엘리야
겔간 전도사를 인도선교사로 파송하
는 파송예배)

11월

- 1 일 월간총현 주간예 이준교목사 후임예
윤형철목사로 임명
- 1 일 산업전도회 제 1 회조찬기도회
(매월 1 일 실시)
- 1 ~ 3 일 중국대륙선교의 밤 (강사/홍종만목사)
- 4 일 주일학교 종합행정감사 실시
- 12~13일 평신도 특강(강사/ 이종운 목사)
- 18일 추수감사 주일
- 25일 1980년도 제직(권사·서리집사) 임명

12월

- 2 일 1980년도 구역권찰요원 임명
- 2 일 산업전도회 정기총회
- 9 일 1980년도 주일학교교사 임명
- 9 일 남전도회 권사회 정기총회
- 16일 1980년도 성가대원 임명
- 16일 여전도회(I·II부) 창립총회
- 25일 성탄절
- 27일 교사 총회
- 30일 수료·진급식

1980년도 단기수련회 실시

1980년도를 맞으며 1년동안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1980년도를 살아 갈 새로운 결심을 주님앞에서 하기 위한 단기 수련회가 오는 1월 3일 교역자 및 장로 수련회를 시작으로 열리게 된다.

3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간 열리는 이번 단기 수련회의 일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0년도 단기 수련회 계획안

구 분	일 자	시 간	교 과 목	강 사	시 간
교역자 및장로	1. 3 (목)	10:00~10:50	당회장의 목회방향 제시	김창인	본 당
		11:00~12:30	지도자론	김희보	"
		14:00~15:20	세계의 정치동향과 교회의 자세	이원설	"
		15:30~17:00	요나서의 메시지	윤영탁	"
	1. 4 (금)	10:00~12:00	장로의 기원과 그 직무	차영배	"
		13:00~14:50	교회성장의 원리	이종운	"
		15:00~16:30	대화의 시간	김창인	"
		17:00~18:00	저녁 식사		유 치 부
직 원	1. 4 (금)	10:00~12:00	직원의 자세	김종택	당 회 실
부흥회	1. 7~9 (월~수)	19:00~21:00		조해수	본 당
제직및 권찰	1. 10 (목)	19:00~19:50	80년대의 총현교회와 우리의 사명	김창인	본 당
		20:00~20:50	효과적인 구역운영과 교회성장	김재창	본 당
교 사	1. 11 (금)	19:00~19:50	80년대의 총현교회 주교 방향과 교사의 자세	정상우	본 당
		20:00~20:50	총현교회 교과과정의 분석과 제언	김득룡	본 당
	1. 12 (토)	19:00~20:50	(1) 영아, 유치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정정숙	영 아 부 실
			(2) 유, 초등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임승원	유 치 부
성가부	1. 11 (금)	19:00~19:50	(3) 중, 고, 대, 청년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김진택	에 배 실
					(별관 4 층)
	1. 12 (토)	19:00~20:50			새 신 자 부
성가부	1. 11 (금)	19:00~19:50	80년대의 총현교회와 우리의 사명	김창인	유 년 부
			한국교회 성가대의 문제점	김의작	"
	1. 12 (토)	19:00~19:50	발성의 실제	이유선	"
			복음 찬송가의 문제	김두환	"

12월의 행사

- 2 일 / 1980년도 구역권찰 요원 임명, 신·구제직회, 재정위원회 월례회, 산업전도회 정기총회
 9 일 / 1980년도 주교 교사 임명, 남전도회 헌신예배, 권사회·남전도회 정기총회
 14일 / 교회 철야 기도회
 16일 / 1980년도 성가대원 임명, 여전도회 정기총회·재정위원회월례회, 해외복음 실행위원회
 20일 / 정기당회
 23일 / 구역권찰 월례회, 전도위원회 월례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24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25일 / 성탄절
 27일 / 교사총회
 28일 / 특별 제직회
 30일 / 해외복음 선교회 월례회, 풍로장로 추대(우성원장로)

편집하고 나서

* ... 1979년도 12월로 끝난다. 12권의 책을 만든다는 일은 그저 보기보다는 좀 어려운 일 같다. 미흡한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의 성원가운데 12월호를 마무리 짓게 되니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주위의 많은 격려와 비판등이 많았다. 그만큼 월간총현을 아끼고 더 잘 해 보려는 관심들이 무척 고맙다.

그동안도 원고독촉에 싫은 얼굴을 안하시고 귀한 글을 써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 이젠 1980년에는 좀 더 모든면에서 발전한 월간총현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멀리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직접으로 참여하는 총현지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의치가 않다. 새해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한다. 또한 지방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좀 더 성실히 보고싶다.

* ... 매년 12월호에는 어린이를 위한 성탄동화를 실었다. 이번호에도 강정규선생님이 귀한 글을 써 주셨다. 이는 비단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정식구 모두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글이 되었다. 매년 맞는 성탄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직접으로 부딪혀 오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보자.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윤형철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월 간 총 현

12월호

제 7 권 통권 제72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윤 형 철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 가36
 267-9937·9738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의 완성

성령은 피조물에 직접적으로 동작하심으로써 사물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그 자신이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인격이신 것과 같이, 그의 사역은 각 분야에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의 완성이며 매 경역(每境域)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종결이다. 성자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을 뒤따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을 뒤따른다. 이 진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의 사역이 성자의 객관적 사역과 떨어지게 되면 그릇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역은 자연계와 구속계에서 다음과 같이 일하신다.

1. 자연계에서

1) 생명의 발생-실유(實有)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사상(思想)은 성자로 말미암고 생명은 성령에 의해 매개(媒介)되었다. (창1:3, 욥26:13, 시33:6, 104:30). 그 점에서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 종결적 접촉(終結的接觸)을 행하신 것이다.

2) 사람들에게 일반적 영감과 능력을 주신다-성령은 사람을 영감하며 능력을 주어 직무를 수행케 하신다. 즉 과학과 예술등에서의 일을 위해 그들을 영감하시며 능력을 주신다. (출28:3, 31:2-3, 6, 35:35, 삼상11:6, 16:13-14)

2. 구속계에서-

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것은 구속계에 있어서의 사역이다.

1) 예언-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고(벧후1:21),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하였다. (요16:13, 행11:28)

2) 성경의 영감-성령은 성경을 영감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전2:13, 벧후1:21)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구속사역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3)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체의 준비와 능력을 주심-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위하여 그의 신체를 준비하

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체를 준비하시어 그로하여금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다. ((눅1:35, 히10:5-7)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을 따르고 있다. 그 의미는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사 나로 하여금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도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부으심을 받으셨고(눅3:22) 또한 성령의 동력주시는 은사를 무한히 받으셨다. (요3:34)

4) 구속의 적용-성령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을 사람들의 영혼에 실제로 적용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같은 구원 서정의 모든 영적은혜를 누리 구원을 얻게하신다.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하여 새롭게 하고 거룩한 생활에 견인지구(堅忍持久)하게 하는 전 과정이 성령의 사역이다. 요3:5, 8:14, 고전12:3은 이 사실에 대한 증언의 몇 가지 실례들이다.

5) 교회의 설립과 유지-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새 출발을 가능케 하였다. 성령의 이적적 활동과 영적은사는 초대 교회의 설립과 유지에 동력인(動力因)이 되었다.

그 후 교회의 형성과 지속은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여 왔다. 성령은 구속의 적용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인 교회를 형성하시며 증진시키고 그 속에 새 생명의 원리로서 거주하신다. (엡1:22-23, 2:22, 고전3:16, 12:4, 55)

6)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심-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모든 진리로 교회를 지도하신다. 성령은 이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세주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시며, 교회를 오류로부터 수호하시며, 또한 교회로 하여금 그 영원한 장래를 위해 준비케 하신다. (요14:26, 15:26, 16:13-14, 행5:32, 히10:15, 요일2:27)- 박형용저 교의신학에서

성도들이 성령에 관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은 성경의 저자(著者)로서(벧후1:21, 벧전1:11, 요4:26, 고전2:2-13)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성경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성 봉 목사 <청년부지도>



실로암
못가에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
워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
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주께
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
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 장 8 절 ~ 20 절〉